

장성군 골칫거리 '잔디 부산물' 퇴비화 성공

매년 4만6760t 가량 발생 불법소각 매연 등 민원 속출 퇴비화 기술 연내 농가 보급

전국 최대 잔디재배지인 장성군이 잔디 농사의 골칫거리인 '잔디 부산물'의 퇴비화에 성공했다.

장성군은 그동안 퇴비화가 어려워 전량 소각방식으로 처리하던 잔디 부산물을 퇴비화하는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1980년대부터 '잔디 매카'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장성지역은 전국 잔디 생산량의 62%를 차지할 만큼 최대 생산지로 꼽힌다. 현재 993농가가 1670ha에서 잔디를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질 좋은 잔디를 생산하기까지는 수차례 잔디를 깎아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매년 4만6760t 가량의 잔디 부산물이 발생하면서 처리에 애를 먹어왔다.



장성군이 처리에 애를 먹었던 잔디 부산물을 퇴비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장성군 제공>

그동안 대부분 농가에선 부산물을 건조한 뒤 불법으로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지만 산불발생 위험과 매연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장성군은 잔디 부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위생과, 산림

편백과,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테스크포스를 꾸려 본격적인 퇴비화 연구에 매달린 끝에 성공을 거뒀다.

개발에 성공한 '미생물을 이용한 퇴비화'는 악취와 침출수 발생이 없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 방식이다.

퇴비화의 걸림돌이었던 잔디의 질긴 섬유질도 미생물을 투입하면 20여일 만에 양질의 퇴비로 탈바꿈 된다. 미생물의 경우 한 번만 투입하면 1~3년간 계속해서 퇴비를 생산할 수 있어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가장 중요한 퇴비의 안전성도 입증 받았다. 장성군이 '농촌진흥청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퇴비 안전성 검사 결과, 비소·카드뮴·수은·납 등 유해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대장균과 살모넬라균도 검출되지 않았다.

장성군은 오는 12월까지 '미생물을 투입한 잔디폐기물 퇴비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고품질 잔디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려면 잔디 부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절실했는데 해답을 찾은 만큼 부산물 퇴비화 기술을 농가에 적극 보급해 명품 잔디 생산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담양군 푸드코디네이터 대학 개설

전국 지자체 최초...3개월 과정 상차림 등 강좌

담양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푸드 코디네이터 대학을 개설했다.

담양군은 지난 5일 담양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최형식 군수, 김기성 군의회 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7 푸드 코디네이터 대학'을 개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푸드 코디네이터 대학은 3개월 과정으로 주 1회, 총 13회 운영된다. 맛과 멋을 더한 상차림(테이블세팅)의 기본과 매너교육, 음식의 미적 감각을 살린 푸드스타일링 실습, 푸드코디네이터 자격 취득과정 등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열리는 '대한민국향토식품화대전'에 참가해 담양 향토음식 상차림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맛음식연구원 이성희 박사는 "음식분야 교수 및 전문가 6명을 초빙해 다양한 이론과 실습, 맞춤형 강의를 준비했다"며 "담양다움을 살린 상차림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형식 군수는 "민선6기 공약 사업인 남도음식 산업화 및 세계화 기반구축 사업에 발맞춰 아침식사 메뉴 개발, 로컬푸드 4저(저) 건강법상, 친환경 건강음식점 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담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상차림을 기대하고 '남도맛기행' 중심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외식업 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엘로우 시티' 장성군 이번엔 '마을 정원 만들기' 읍면별 4~6명씩 12팀 61명 '마을 가꾸기 리더' 조경 교육

'엘로우 시티' 장성군이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에 나선다. 장성군은 다음달까지 두 달간 마을 가꾸기에 앞장설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는 '엘로우 시티 마을정원 만들기 교육' 사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장성군이 정원 전문가를 키우는 이유는 '마을 가꾸기 리더'를 양성해 그들로 하여금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앞장서게 하기 위해서다.

장성군은 '마을 가꾸기 리더'를 양성하면 마을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각 마을의 실정에 맞는 지역축제 등을 기획하는 데도 마을 가꾸기 리더가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군은 '마을 가꾸기 리더'가 지역 특

유의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발굴 및 개발해 지역민의 창조성을 북돋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의는 한국 최고의 조경 전문가인 안인숙(43) 안스그린월드 대표가 맡는다. 안스그린월드는 고양국제꽃박람회, 드림파크 국제꽃제 등에서 화훼 및 조경의 총괄 역할을 담당한 조경 전문가이다.

안 대표에게 마을정원 만들기 교육을 받은 이들은 읍면별로 4~6명씩 모두 12개 팀 61명이다. 주민자치위원장부터 한국어성 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청년회 회장, 마을이장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받는 이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이들은 팀을 꾸려 각 마을 실정에 맞는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안인숙 '안스그린월드' 대표가 지난 5일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마을정원 가꾸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순군 복지사각

2729세대 발굴

6~8월 집중발굴 기간 작년보다 217% 늘어

화순군이 복지사각지대 없애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월 화순군에 따르면 관내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한 결과, 2729건을 발굴·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56건에 비해 217% 늘어난 것이다. 군은 차상위, 소외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했다.

중점 발굴 대상은 단전, 단수, 건강보험

료 등 각종 공과금의 장기체납 가구와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 가구, 도움이 필요한 사회배려 계층 등이다.

군은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1명, 복지이장 343명을 통해 현장 발굴하고 경찰서·학교 등 유관기관의 연계 발굴하는 등 총출동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 긴급복지·기초수급 등 공적 지원 949세대, 민간 지원 1779세대 등 총 2729세대를 발굴·지원했다. 특히 공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 사업 6900만원을 확보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반찬지원', '생활용품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 지역 내 사회적기업 후원으로 장아찌류 등 3종의 밑반찬을 독거노인 55세대에 지원하는 등 민간지원 18건, 6100여만원을 연계·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문의, 화순군 희망복지지원단 061-379-3941~2. /화순=조성수기자 css@

담양 농기센터에 농산물가공센터 설립

담양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들어선다.

담양군은 최근 사업비 15억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안에 820㎡ 규모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오는 2019년까지 건립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농촌진흥청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고, 주민설명회와 지역 농산물 판매현황 조사 등을 마쳤다.

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등록,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에 맞는 건축 설계를 통해 고품질 가공품 생산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력 생산 가공품목을 정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규모 농식품가공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9~10일 이틀간 화순적벽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축제

2017 화순적벽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축제가 9~10일 이틀간 화순군 하니움체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배드민턴 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배드민턴축제는 전남 22개 시·군 1330개 배드민턴팀 2700여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신인부, 혼합복식, 남녀 복식 등 3종목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순군에는 화순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선수를 기념해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인 이용대체육관이 조성되는 등 배드민턴의 메카가 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나성종기자 nsi@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